

# “사드, 미국으로 돌려보라 지시” 인정

# 中 스텔스 폭격기 ‘홍-20’ 배치 임박 美본토 타격가능...B-21과 외형 유사

### 트럼프 “엄청 부자 나라 보호하려고 돈내고 배치” “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 안보 무임승차론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시스템을 미국에 배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 카운실빌러프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유세 연설을 통해 “우리가 엄청난 부자인 나라(한국)를 보호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 원)가 드는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장성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사드 비용에 대해 논의한 과거 일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를 밝히지 않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데 사드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내느냐”고 장성들에게 물었다고 전했다.

10억 달러를 미국이 낸다는 답변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우!”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자신이 군장성들에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로(사드) 돌려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성들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미 합의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난 상관 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일화를 소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자나라라는 점을 부

각하고자 “나도 삼성과 LG 텔레비전을 많이 주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드 배치 논란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발언은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와 신간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 적힌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버트 맥 매스터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보

좌관과 사드 비용 문제로 대화하다가 “(주한미군) 사드를 철수시키고 포틀랜드에 배치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우리는 한국을 좋아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숫자를 언급한 뒤 “그들은 돈을 내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인도 북부서 기차 탈선...5명 사망·수십명 부상

기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라에바렐리 인근에서 10일(현지시간) 구조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여객기차의 6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일어나 승객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미국 본토까지 한 번에 비행할 수 있는 중국의 자국산 장거리 스텔스 전략폭격기 홍(轟·H)-20의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10일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관영 중앙(CC)TV가 방영한 군사 다큐멘터리에 중국의 차세대 전략폭격기인 ‘H-20’라는 문구가 등장했다며 H-20의 실전 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이자 평론가인 쑹중핑(宋忠平)도 “중국은 군사 장비와 무기 개발은 보통 극비로 진행된다”면서 “전략폭격기를 노출한 것은 전략적 의

지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H-20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이전에 처음 노출된 것”이라며 “공식적인 제작식은 유압, 전력 공급, 항공전자시스템 테스트이후 거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인터넷 매체인 핑파이(澎湃)는 테스트 전 전략폭격기 이름을 노출한 것은 중국 항공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H-20 폭격기의 기본 개념과 외형은 미 공군의 B-2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日 해저 화산폭발 섬 면적 계속 증가

### 2년새 EEZ 여의도 16배 ↑

일본 도쿄(東京) 남쪽 약 1천km 해저에서 발생한 화산폭발로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니시노시마(西之島)의 면적이 2년 전보다 10%가량 넓어졌다고 NHK가 10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이 지난 7월 해도(海圖)를 개정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 레이더 측량을 한 결과 니시노시마의 서쪽 해안이 320m, 서남

해안이 230m 각각 넓어졌다. 이에 따라 이 섬의 면적이 종전보다 10%가량 넓어진 3km<sup>2</sup>가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영해는 4km<sup>2</sup> 배타적경제수역(EEZ)은 46km<sup>2</sup> 확대된다고 방송은 전했다. 46km<sup>2</sup>는 여의도 면적(2.9km<sup>2</sup>)의 16배 가까운 넓이다.

니시노시마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인근 해저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흘러나온 용암이 굳어지면서 섬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 증시 폭락

중국 증시 주요 지수가 국경절 연휴(1~7일) 이후 첫 개장일인 8일 폭락하면서 ‘블랙 먼데이’를 맞았다. 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인 지난달 28일 증가보다 3.72% 떨어진 2,716.51로 거래를 마쳤다. 중국 본토 증시가 휴장한 사이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충격파가 뒤늦게 중국 증시에 미쳤다. /연합뉴스

## “나쁜 콜레스테롤엔 중자 기름이 최고”

### 독일 인간영양연구소 발표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는 중자 기름(seed oil)이 최고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 인간영양연구소의 루카스 슈빙스하를 박사 연구팀은 혈중 LDL 수치를 떨어뜨리려면 섭취하는 지방을 포화지방에서 불포화지방으로 바꾸어야

하지만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해바라기 씨, 평지 씨, 홍화 씨, 아마 씨 등 중자 기름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9일 보도했다.

2가지 이상의 다른 지방을 같은 칼로리 섭취했을 때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논문 55편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타났다고 슈빙스하를 박사는 밝혔다. /연합뉴스

## “북한인구 40%가 영양실조 지원 부족 식량공급 불안정”

### 세계식량계획 “식량 원조 필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부족으로 북한의 식량 공급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경고했다.

WFP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인도적 원조를 필요로 한다”고 발표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과 함께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하고 있는 극소수의 기관 가운데 하나인 WFP는 현재 매달 약 65만 명에 달하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영양 성분이 강화된 곡물과 비스킷 등을 지원하고 있다.

WFP의 헤르버 페르후설 대변인은

이날 “예산 부족으로 이들에게 공급하는 영양과 보건 프로그램을 삭감해야만 할 처지”라며 “올해 이뤄진 일부(원조) 진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광범위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북한 전역에 더 많은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페르후설 대변인은 인도적인 지원 활동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제재에 포함되지 않지만, 운송 회사를 포함해 일부 공여자들과 회사들이 북한의 원조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간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상황이 좋아지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현대차, 美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투자

### 자율주행 등 기술 확보 기대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의 AI 전문 스타트업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

현대차는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상호 협업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자율주행·로보틱스·스마트시티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 규모나 지분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협업을 통해 인간 행동의 예측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된 퍼셉티브 오토마타는 비전(시각) 센서와 정신물리학(Psychophysics)을 기반으로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 AI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다.

일반적인 AI가 축적된 객관적 데이터로 반복 훈련을 하는 반면 퍼셉티브 오토마타는 실제 인간의 관점에서 주관적 판단을 가미해 학습하는 AI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외부 사물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기술을 넘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술을 통해 AI 기술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의 설립자인 시드 미스라 최고경영자(CEO)와 새뮤얼 앤서니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미국 내 정신물리학 기반의 AI 기술을 주도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인간 행동을 예측하는 퍼셉티브 오토마타의 AI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과 융합할 경우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가 매매(수익형 오피)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 옆

23평 (모든업종가능), (주택가능)

공실 없음 (임대 항시대기)

보5백 월 40만

시세 1억3천  
매가 8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신축 원룸 매매

신축원룸  
산정공원 앞

토 60평 건 117평  
1층 상가1칸  
(2층~4층 원룸 10개, 투룸4개)

매가 8억 1천  
(보 1,800만 월 560만)

1) 월곡동(하남농협 1분) (코너) (1층 상가1칸)  
2층~3층(원룸10개) 4층(주택,32평)  
월세 510만 용(2억5천만)  
▶ 매가 8억 6천만

2) 월곡동 농협 2분 원룸 - 16개  
월세의 510만, (보 1천500만, 용 2억5천)  
▶ 매가 8억 4천만

3)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길1개)  
총 14개 보 7천만 월 700만  
▶ 매가 12억 8천만(용 3억 5천만 가능)

010-6670-9800

### 대신경매 법률경매

경매교육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9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상가빌딩 (추천)

1) 남구 송하동 (5층 상가건물) 토 138평 건 491평  
광주여대 2분 (교회, 본사건물 추천)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풍암동 (상가주택) 토 101평 건 220평  
1층 (커피숍) 대단위 아파트 내 위치  
▶ 감평가 10억 → 최저가 7억4천

근린상가 / 빌라 / 숙박시설

1)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 136평 건 427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5억7천

2)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 103평 건 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6억5천

3) 북구 문흥동 (아파트상가 2층) (13평)  
▶ 감평가 7천7백 → 최저가 4천3백

4) 광산구 우산동 (클럽빌드 1층)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

5) 북구 중흥동 (씨네스전대 2층)  
▶ 감평가 3억6천 → 최저가 2억5천

A.P.T. 주택

1)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45평)  
▶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2) 서구 치평동 중흥아파트(33평)  
▶ 감평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3) 광산구 신정동 신기부영(32평)  
▶ 감평가 2억 → 최저가 1억4천

4)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24평)  
▶ 감평가 2억2천 → 최저가 1억5천7백

5)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33(33평)  
▶ 시세 1억7천 → 감평가 1억2천

공장/기타

1) 북구 대촌동 (공장) 토 500평, 건 575평  
▶ 시세 11억7천 → 최저가 8억2천

2) 광산구 월전동 (공장) 토 2,199평, 건 1,970평  
▶ 시세 46억 → 최저가 46억

3) 강진군 칠량 (공장) 토 1,338평, 건 559평  
▶ 감평가 15억 → 최저가 12억

4) 광산구 우산동 (클럽빌드 1층)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1억

5) 북구 용봉동 (12층 중 12층)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5천8백

010-7384-7800 010-6670-9800